

아프리카에도 불교가 있었네

홍진 스님의 말라위 '아미타불 케어센터' 체험기

아프리카에도 절과 스님이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한 번이라도 가져 본 불자들은 또 얼마나 될까. 문명의 혜택은 고사하고 인간다운 삶조차 영위하기 힘든 곳이 많은 아프리카. 아프리카 대륙 남동부에 위치한 나라 말라위 공화국도 예외는 아니다. 빈곤과 기아, 그리고 에이즈는 이미 이들의 삶 깊숙이 파고들어 하루에도 많은 어린 생명들이 죽어나간다.

이런 곳에도 불교는 있다. 아니 이곳이 아마도 불교가 진정으로 있어야 할 곳인지 모른다. 중앙 승가대에 재학 중(역경학과 3학년)인 홍진 스님의 말라위에 있는 대만 사찰 '아미타불 케어센터'에서의 열흘 간 현지체험기를 실는다. 홍진 스님은 아프리카 불교를 체험하기 위해 2006년 12월 20일부터 2006년 2월 17일까지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에 소재한 대만 불광산사 사찰인 남화사와, 케이프타운과 더반의 남화사 말사 3곳, 말라위의 아미타불 케어센터를 둘러보았다. <편집자>



말라위공화국의 아미타불 케어센터 아이들이 기숙사 앞에서 방문객들에게 합장인사를 하고 있다.

1만 5000명의 주민 중 3000명이 에이즈에 양성반응을 보이고 15~45세의 주민 중 60% 이상이 바이러스를 가진 것으로 의심된다. 그로 인해 다시 에이즈 양성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버려져 기아와 병으로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다.

대만 혜혜스님, 부처님 '케어센터' 오픈

이 곳 아미타불 케어센터가 말라위에 첫 발을 내리게 된 인연은 대만 불광산사 남 아공 말사인 남화사의 장건주이신 혜혜 스님이 성운 스님의 인간불교의 이념 실천을 위해 1998년 휠체어를 기증하면서부터였다. 그 때 혜혜 스님은 말라위에 만연해있는 에이즈로 인한 폐해를 보고 실로 경악하게 된다. 그 규모와 실태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본 혜혜 스님은 이 아이들을 위해 분명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불제자로서의 강한 사명감을 느끼게 된다. 이윽고 말라위 대통령 부인을 설득하고 그 영부인이 다시 정부를 설득하여 34ha의 땅을 고아원 건립 부지로 얻어내 이름을 아미타불 케어센터로 명명하고 뜻있는 화교신도들을 규합하여 설립자금을 마련, 건물 100동에 2천명의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규모로 2003년 11월 28일 공사 착공을 시작하게 된다.

모두 완성되기까지 기다리기엔 너무 시간이 소요되므로 단계적으로 완성하여 아이들을 데려오기로 하고, 2005년 10월, 우선 1단계로 건물 다섯 동을 완성하여 100명의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와 기부자들과 정부 관계자 및 스님들을 모시고 오픈식을 거행하였다.

그러나 케어센터는 아쉽게도 이 나라 정부로부터 건립 부지를 제외하고는 어떤

지원이나 혜택도 받지 못한다. 우리의 상식으로 예상되는 아동 1인당 보호수당은 커녕 전기, 수도료 등 그 어떠한 것도 감면이나 혜택이 없다. 하다못해 관공서에서의 간단한 서류접수마저도 평소 해당 공무원에게 선물이 없었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기 일쑤다.

말라위정부 관리들은 자신의 정부가 보살피지 않는 버려진 아이들을 외국에서 온 이들이 보살피는 것에 어떠한 감사의 마음도 가지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이 좋아서 하는 일'이라는 사고로, 정부 관리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 게다가 새로 바뀐 대통령마저도 전임 대통령이 벌여놓은 일이니 내가 상관할 바 아니라는 태도다.

부처님 생애 배우며 성장

현재 아프리카 53개국에는 아주 작은 규모의 스리랑카 사찰이 3개국에, 큰 규모의 대만사찰이 2개국에 있다. 아프리카에서 사찰은 5곳에 불과한 것이다.

학교로 간 아이들은 오후 1시 반이면 모두 케어센터로 돌아와 점심공양을 하고서 얼마간의 자유시간을 갖는다. 이곳의 아이들에게 장난감이란 상상조차 해볼 수 없다. 그저 돌멩이나 유리조각 등으로 흙바닥에 퐁퐁 노는 정도고, 그래서 갖가지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

그레도 아이들은 요일별로 달리 마련된 일정으로 찬불가와 율동, 중국어를 배우고, 또 부처님의 생애와 부처님께 예배하는 법을 배운다.

이 아이들이 자라 성인이 되는 7~8년 후부터는 부처님의 연기법에 의한 가치관을 가진 아이들이 정부의 부패와 구수를 타파하여 이 나라 말라위도 변해갈 것으로 믿는다.



이병두와 함께 읽는 오늘의 세계불교

싱가포르 화합 이끄는 보각선사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듯이, 싱가포르의 인구가 400만 명 정도에 불과하고 국토 면적도 아주 작은 도시국가이다. 이 인구 중 중국계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말레이계와 인도계도 적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와 여행객이 항상 300만 명이 넘을 정도이다. 좁은 도시 국가 안에서 이처럼 다양한 인종이 어울려 살아가는 것은 그만큼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자칫 잘못하여 흑시 어떤 작은 사건이나 사고가 뇌

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토·일요일 불교 학교'와 '읽어 주는 도서관' 등을 개설하고, '일일(日日) 수행 과정'을 만들어 단계별 교육을 실시한다.

이밖에도 악단을 조직하는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펼치고, 동호회를 조직하여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가게'와 유사한 '재활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신도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세계적인 스님들과 불교화자들을 초청하여 법회와 강연을 펼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www.kmspsk.org)에 올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



보각선사가 운영하는 '법보시 가게'.

홈페이지에서는 영어와 중국어판의 다양한 불서를 전자 도서 형태로

여러 인종으로 이루어진 도시국가 특성 고려 활발한 법보시 운동·열린 포교로 다양성 흡수

그러므로 싱가포르처럼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종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그 사회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각 종교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전체 사회의 평화와 화합을 이끌어내는 순(順)기능을 다하면 미래에 대해 낙관하고 희망을 품을 수 있지만, 이와 반대로 그 사회의 여러 종교 중 단 한 곳에서도라도 역(逆) 방향으로 질주할 경우에는 견집을 수 없는 혼란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사회 전체의 근간이 무너지는 파멸에 이를 수도 있다.

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토·일요일 불교 학교'와 '읽어 주는 도서관' 등을 개설하고, '일일(日日) 수행 과정'을 만들어 단계별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초청 법사가 특정 국가나 인종 출신의 스님들에 한정되지 않고, 한쪽에 치우친 신앙행태를 벗어나 '선과 정토, 화엄' 등 대승불교의 수행뿐만 아니라 남방불교의 수행체계도 균형있게 소개하여 대중들이 근기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점은 눈길을 끌게 한다. 이는 '다양성을 추구해야 하는 싱가포르의 지리·역사·문화적 배경'을 크게 배려한 것으로 여겨진다.

여러 인종으로 이루어진 작은 도시 국가 싱가포르에서 '보각선사(普覺禪寺)'는 '다양성 속의 화합'을 이룩하는 큰 불사를 하고 있어 종교가 본래 말아야 할 순(順) 기능을 다하고 있고 활발한 법보시 운동과 인터넷을 통한 국제 포교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으나,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구호가 헛되지 않을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기도 하다.

■ 자유기고가



예불시간에 합장한채 기도하는 흑인 아이.

아침 해가 어둠을 헤치며 속살을 터뜨려 세상을 온통 오렌지 빛으로 물들였다. 어제 내린 비로 땅은 여기저기 꿩고래고, 아미타불 케어센터로 향하는 길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고 내가 그 그림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간다.



홍진 스님

발쳐 아이들이 아침 참선을 위하여 법당으로 모여들고 있는 모습이 먼발치에서 보인다. 이 곳 아미타불 케어센터의 하루는 꽤 일찍 시작된다.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 30분간 자리를 정리하고 세면을 하고서 법당에 모여 아침 참선을 한다. 참선을 마치면 6시에 아침공양을 하고, 6시 반이면 학교로 나선다.

학교까지는 걸어서 40분 정도가 소요되고 안전을 위하여 부모 한 명이 동행한다. 여기서 우리는 진풍경을 발견한다. 아이들은 저학년 반을 제외하고는 모두 손에 농기구들을 들고 있다.

학교는 피아노는커녕 풍금하나 없고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에이즈로 고통받는 아이들

이곳 통계에 의하면 자연사를 제외하고 에이즈와 말라리아, 기아로 매일 10명이 죽어가고, 특히 에이즈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러 약 10만 명의 아이 중 4만 9000명이 대부분, 에이즈로 죽음을 당한 부모로 인해 버려져있다. 이는 태어날 직부터 에이즈 양성으로 태어난, 이 나라의 거의 절반의 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방치되어 있음을 뜻한다.

게다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구태의연하게 전해져 내려오는 악습이 에이즈의 만연을 더욱 부추겨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케어센터가 위치한 마을에는 병원이란 없고 단지 한군데의 클리닉만이 있을 뿐이다.



법당에서 절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케어센터 아이들.

일허스님의 장애우 휠체어 보시 기금마련 달마도 보급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불제자의 인연으로 그 소임을 다하고자 정진함에 있어, 항상 소위된 우리의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소남의 작은 재주로 장애우들께서 조금 편안함을 얻을 수 있다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연유로 '장애우 휠체어 마련 달마도 보급운동'을 시작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께서 동참해 주시어 그 뜻이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마도 보급에 동참하여 주시는 고마운 뜻과 장애우들에게 전달되는 내역을 지면을 통해 빠짐없이 공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암 주지 일허 합장

▷ 일허스님

- 부산에서 출생, 사미계수지, 송광사에서 구족계, 운곡,강장원 선생 사사
- 2001년 중앙승가대학 졸업
- 2002년 제1회 개인전, 달마·선화의 세계 (부산국제신문 문화센터)
- 2003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졸업
- 2005년 한성대학교 박사 과정 재학중
- 2005년 대한불교조계종 영천암 주지(現)
- 재적본사,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달마도란?

달마도라 함은 윤필이 거침없이 힘차고 간결하며, 먹의 쓰임 역시 깨끗하여 탈속의 경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니,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도 평온해지는 불가사의한 그림이다.



달마도 大 / 10만원
달마도 小 / 5만원

직접 그리는 관계로 조금씩 작품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장애우 휠체어 기금마련 달마도 보급운동에 동참하실 사찰이나, 스님께서 연락주시면 달마도를 보내드립니다

- 주관 : 영천암 신도회, 수창정진회
- 후원 : 연꽃마을, 진각복지재단, 인천 청학사
- 후원계좌 : 농협 811091-52-133201 (예금주:김영철)

대한불교조계종 영천암 주소: 경남 밀양시 삼량진읍 우곡리 산 200번지 / 전화 : 055)356-2040, 011-867-4747